

東醫寶鑑 外形篇 卷1 [頭]부분 관련처방의 재해석

박선동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ABSTRACT

A Study of Prescriptions of Head Part in DongEuiBoGam

Sun-dong Park

Department of Oriental Prescrip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許浚(Heo Jun), the best physician on his day, wrote 東醫寶鑑(DongEuiBoGam, 1613) based on his clinical experience as a court doctor and life-long study of over 500 medical books. Now most clinicians consult 東醫寶鑑(DongEuiBoGam) for its practicality. And it is also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valuable medical books for basic medical studies. As 許浚(Heo Jun) mentioned on the 東醫寶鑑(DongEuiBoGam) preface, we should practice flexibilit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medical classics instead of binding ourselves to the precedents. But worship of 東醫寶鑑(DongEuiBoGam) may hinder the studying of new pathways.

The treatment and its understandings of a disease should be based on objectivity of observation. Finding the common traits of the recipes in 東醫寶鑑(DongEuiBoGam) is important for the study of 東醫寶鑑(DongEuiBoGam). Accordingly, group synthesis of symptoms and resultant classification of recipes are vital. In this research, symptoms listed in the head part(頭門) of External Shape vol. I(外形篇 卷1) of 東醫寶鑑(DongEuiBoGam) are synthesized into 3

-
- 교신저자 : 박선동
 -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 Tel : 054-770-2654 E-mail : sundong@dongguk.ac.kr
 - 접수 : 2007/ 05/ 08 1차 수정 : 2007/ 06/ 18 2차 수정 : 2007/ 06/ 25 채택 : 2007/ 06/ 28

different parts: head-wind syndrome(頭風證), dizziness(眩暈), headache(頭痛). Classification of prescriptions according to these 3 parts is also suggested.

Key word : DongEuiBoGam, head, prescription

1. 緒 論

東醫寶鑑은 許浚(1546-1615)선생이 御醫로서 임상경험과 內藏方書 500여권을 두루 섭렵, 考證하여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湯液編 그리고 鍼灸編으로 나눈 25권 25책으로 1613년에 집대성한 醫書이다. 현재 한국 한의학에 가장 중요한 醫書로서 임상가에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기초의학분야에서도 가치있는 교육과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허준선생이 序文에서 '선례에 얽매어서 변동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판단이 흐릿하고 핵심을 잃어버려 사람을 살리려다 죽이는 일이 허다하다.'고 언급한 것처럼, 지금에 와서 다시금 생각해보면 400년 전의 동의보감 또한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맞는 재해석을 통한 통합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溫故而知新하되 불필요한 요소의 배제와 새로운 한의학적 방법론의 대두가 자칫 동의보감송배의 그늘에 가릴까 아쉬운 현실이다.

한편, 東醫寶鑑을 살펴보면 번잡한 증상과 증후 분류로 인하여 많은 처방들이 중복되어 처방하는 의사로 하여금 혼돈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되나, 오히려 이를 주장하는 사람의 무지한 진단오류로 몰아붙이는 경향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환자를 통한 질병의 인식과 치료가 우선 그 객관성이 전제되어야함이 마땅하고, 그 이후에 환자나 약물의 개별적인 주관적 경향을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東

醫寶鑑내 다양한 처방들의 보편성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자는 우선 東醫寶鑑 중 外形篇 권1에 있는 [頭]부분을 해석하면서 方劑學 측면에서 처방의 분석을 통한 病症의 통합과 처방의 재분류를 하고자 하였다. '머리는 元神이 있다고 하고, '腦는 髓海이다' 라고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활용처방의 한의학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찾고자 頭風證, 眩暈 그리고 頭痛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II. 考 察

1. 頭風證

頭風證의 病因을 원래 痰飲이 있거나 혹은 생활중에 風邪를 받아서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크게는 두통의 범주에 속하면서 안면근육의 마비감, 이물질감 혹은 경련을 호소하는 징후로 보인다. 따라서 처방분석에서 實>裏>寒으로 귀속된 약물은 실질적으로 實>表>寒경향으로 추론할 수 있다.

처방을 분석한 바 대부분 實證으로 보았으며 消風散과 祛風通氣散에서 補氣약물과 養血祛風湯에서 補血약물이 약간 加味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補氣약물을 表虛寒으로 해석해 보았다. 본 초분류상 [治風劑]의 범주에 속하는 약물로 天麻, 白僵蠶, 白附子, 그리고 全蝎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白僵蠶의 경우 '劫痰濕而散肝風'이라 표

현함으로서 表와 裏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경락개념으로 해석하긴 하지만 현대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이나 아니면 말초신경마비계통의 작용약물인지를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表裏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보았다.

頭風證 약물중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荊芥의 사용인데 散風寒 疎風熱, 疏散血中之風熱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祛風解癢, 消風解表透疹한다고 하여 表實에서 寒熱兼用약물로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頭風證에 활용한 대표적 처방은 消風散과 追風散, 川芎茶調散계통(加減芎辛湯과 菊花茶調散), 烏藥順氣散계통(祛風通氣散과 消風百解散), 그리고 養血祛風湯을 들 수 있다 [Table 1].

Table 1.

*.용량은 모두 g(그램) 혹은 비율로 짐작

병명	처방명	虛				實				輔料	분석
		表		裏		表		裏			
		寒	熱	寒	熱	寒	熱	寒	熱		
頭風證	消風散 (熱證)	人蔘2				防風2 藿香2 羌活2	荊芥4 甘草4 蟬退2 細茶1撮	白殭蠶2 川芎2 陳皮1.2 厚朴1.2	茯苓2	茶清 혹은 溫酒	1. 補氣劑+辛涼解表 2. 감초의 淸熱역할 3. 祛濕작용약
	追風散 (冷症)					荊芥20 川烏炮20 防風20 羌活10 白芷10 草烏炮5	石膏煨20 甘草20	川芎20 白殭蠶炒20 南星炮10 白附子炮10 天麻10 全蝎10 地龍10(通絡) 沒藥5 乳香5 雄黃5		茶清 혹은 溫酒	1. 治風劑(鎮痙劑)+表證 2. 溫性약물과 石膏煨 3. 活絡丹-風寒濕邪 痰 濕於血留滯經絡 (川烏 草烏 +地龍 乳香 沒藥) 4. 雄黃(解毒) 5. 面上遊風狀如蟲行
	川芎茶調散					羌活20 白芷20 防風10 細辛10	薄荷80 荊芥穗40 甘草20	川芎40		茶清	1. 荊芥의 寒熱겸용 2. 祛濕약물의 활용
	祛風通氣散 (風門)=通氣驅風湯	白朮4 甘草4 人蔘2				白芷4 麻黃2		烏藥6 桔梗4 川芎4 陳皮4 枳殼2		薑三棗二	1. 顔面神經痙攣처방 2. 烏藥順氣散(-)白殭蠶 乾薑
	二陳湯 (痰飲門)+ 消風百解散 (寒門)					細辛	酒苓 荊芥 薄荷 石膏	川芎			二陳湯+辛涼解表劑활용
	消風百解散 (寒門)					荊芥4 白芷4 麻黃4		蒼朮4 陳皮4		薑三蔥二	甘草2 傷寒表證(감기약)
	白芷散					白芷以蘿蔔汁浸晒 川烏4 生白芷4		南星4 半夏4		薑汁	烏頭의 祛風散寒止痛
	天香散										
	加減芎辛湯					細辛2 白芷2 藁本2 羌活2 防風2	石膏2 荊芥2 蔓荊子2 甘菊2 薄荷2 甘草2	川芎2 桔梗2 白朮2			
	菊花茶調散					羌活40 白芷40 防風30 細辛20	荊芥40 甘菊40 甘草40 蟬退10 薄荷10	川芎40 白殭蠶10			1. 川芎茶調散+甘菊 蟬退 白殭蠶
	養血祛風湯 (婦人頭風)			當歸2	生乾地黃2	防風2 荊芥2 羌活2 細辛2 藁本2	石膏2 蔓荊子2	半夏2 旋覆花2		薑三棗二	甘草2(조화) 1. 祛痰劑활용

2. 眩暈

현훈, 즉 어지럼증을 東醫寶鑑에서는 五臟중 특히 肝의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발병인자로는 氣血이 虛한 측면과 痰涎과 風火가 實한 측면으로 해석하면서 痰火의 움직임을 현훈이라고 하였다. 종류로는 風暈, 熱暈, 痰暈, 氣暈, 虛暈, 그리고 濕暈 6가지로 분류하였으나 실제 처방내용으로 관찰

해 보면 2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는데, 즉 痰暈과 虛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風暈의 心臟性 혹은 心因性치료제인 川芎散은 虛暈에 귀속시킬 수 있고, 芎藭散은 養血祛風湯과 동일처방이나 용량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가지므로 頭風證에서 虛症처방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虛暈에 귀속시킬 수가 있다. 熱暈은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기 쉬운 처방

은 아니지만, 고혈압에 응급처방으로 설사약을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도 있으며, 또한 散劑로서 장기적으로 혈압강하처방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氣暈에서 玉液湯은 痰暈으로, 補虛飲은 虛暈처방들과 유사한 약물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濕暈 또한 痰暈처방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眩暈의 치료방법은 實의 경향으로 痰暈을 보고 虛의 경향일 때 虛暈으로 관찰하면서 환자의 상황과 일치하는 처방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虛證의 眩暈일 경우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補益劑가 補氣약물위주라는 것이다. 따라서 補中益氣湯이나 十全大補湯을 기본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한편 頭風證에서 治風약물은 鎮痙劑로서 활용하였는데, 眩暈에서는 白附子丸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혈관성두통에 治風약물을 활용한 것으로 추측해 보았다.

實證의 眩暈일 경우 대부분 表에서의 熱의 발생(風熱)과 내부적으로 痰飲이 내재한 병리적 현상으로 파악하였으며, 내부 작용약물로는 二陳湯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특히 川芎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천궁은 熱性を 가지고 活血行氣를 주로 하지만, 辛香升散하고 上行頭目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頭痛이나 風濕痺痛에 祛風止痛의 효능을 가지면서 그 작용점이 머리에 있다. 그리고 補虛飲이나 滋陰健脾湯에서 遠志가 활용되었는데 현훈을 심과 연관성을 짓고 祛痰開竅하는 작용을 이용한 것이라 파악된다[Table 2][Table 3].

Table 2.

*.용량은 모두 g(그램) 혹은 비율로 참작

眩暈	처방명	虛				實				輔料	분 석
		表		裏		表		裏			
		寒	熱	寒	熱	寒	熱	寒	熱		
通治方	四君子湯(氣)+	黃芪蜜炙				荊芥		半夏 陳皮 川芎		竹瀝 薑汁 童便	뽕뽕한 자
	二陳湯(痰飲門)+ 四物湯(血)+					片苓 薄荷					마른 자
	二陳湯+					羌活 酒苓 梔子 黃連		蒼朮			
風暈	川芎散	山藥20 人蔘20		山茱萸40		甘菊20		川芎20 茯神20		술	山茱萸-肝
	芎藭散			當歸3 熟地黃2		羌活2 細辛2 藥本2 荊芥穗2 防風2		蔓荊子2 石膏2 川芎4 旋覆花2 半夏麩2		薑三	甘草2 肝虛 婦人 *養血祛風湯과 동일처방이나 용량차이(上)
熱暈	大黃散 荊黃散					防風8	荊芥穗8		大黃 酒浸炒 大黃酒炒8	茶清	風熱
	半夏茯苓湯(痰飲門)=茯苓半夏湯 澤瀉湯			白朮60				半夏製12	赤茯苓8	薑七片 澤瀉100	支飲
痰暈	白附子丸					甘菊40		白附子炮40 天南星炮40 半夏薑製40 旋覆花40 天麻40 川芎40 橘紅40 白蠟蠶炒40 乾薑40 全蝎炒20		生薑 300g 荊芥湯	肝-風痰(진경제) 혈관성두통
	天麻半夏湯			甘草炙2		柴胡2.8 黃芩酒炒2 黃連1.2		天麻4 半夏製4 橘皮2.8 前胡2	白茯苓2	薑三	風痰
	人蔘前胡湯			甘草炙 3.2 人蔘1.2		紫蘇葉3.2		半夏麩4 枳殼3.2 南星炮3.2 前胡3.2 橘紅3.2 木香1.2	赤茯苓3.2	薑5片	風痰
	清暈化痰湯			白朮2.8 人蔘2		白芷2 羌活2 防風2 細辛1.2	黃芩2	陳皮4 半夏製4 川芎2 南星炮2	白茯苓4 枳實2.8 黃連1.2 甘草1.2	薑三片	風痰+火痰

Table 3.

*.용량은 모두 g(그램) 혹은 비율로 참조

眩暈	처방명	虛				實				輔料	분 석
		表		裏		表		裏			
		寒	熱	寒	熱	寒	熱	寒	熱		
氣暈	玉液湯							半夏薑製16		薑十片 沈香磨水	氣鬱(stress성)
	補虛飲			人蔘4 山藥4 黃芪2.8 熟地黃2 甘草炙1.2	麥門冬4			半夏2.8 前胡2 枳殼1.2 遠志薑製1.2	白茯苓3.2 茯神3.2	薑5片 秫米一撮	風虛 氣鬱(stress성)
虛暈	補中益氣湯 (內傷)			黃芪6 人蔘4 白朮4 甘草4 當歸2		升麻1.2 柴胡1.2		陳皮2			
	芎藭湯 (婦人)			當歸20				川芎20			
	香橘飲			白朮4 甘草炙2				半夏製8 陳皮4 木香2 丁香2 縮砂研2	白茯苓4	薑5片	氣虛眩暈
	滋陰健脾湯			白朮6 當歸2.8 人蔘2	白芍藥2.8 生乾地黃2.8 麥門冬2			陳皮鹽水洗去白4 半夏製4 遠志製2 川芎1.2	白茯苓4 白茯苓神2	薑三棗二	甘草1.2 1.心脾虛
	黑錫丹										陽虛 (入門에 있다함)
	十全大補湯 (虛勞)			人蔘4 白朮4 甘草4 熟地黃4 當歸4 黃芪4 肉桂4	白芍藥4			川芎4	白茯苓4	薑三棗二	
濕暈	芎朮湯			白朮8 甘草炙2				半夏薑製8 川芎8		薑七	冒雨傷濕

3. 頭目不清利

風, 濕, 熱 그리고 痰涎이 精明之府에 鬱滯되면 머리와 눈이 맑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表에서 祛濕작용을 가진 약물과 清熱작용을 가진 약물이 대부분이며 川芎丸에서는 桔梗의 祛痰작용을 활용한

특징이 있다. 대체적으로 頭風證에 활용한 처방과 유사하나 自覺症狀현상만 있으므로 祛痰劑가 없는 경향을 나타내고 補血약물이 약간 쓰임을 볼 수 있으며 輔料로서는 대부분 茶淸을 활용함을 볼 수 있다[Table 4].

Table 4.

*.용량은 모두 g(그램) 혹은 비율로 참조

병명	처방명	虛				實				輔料	분 석
		表		裏		表		裏			
		寒	熱	寒	熱	寒	熱	寒	熱		
頭目不清利	川芎丸					細辛50 防風50		薄荷130	桔梗200 川芎130	茶淸	甘草50 1. 消風化痰 2. 桔梗: 宣肺, 祛痰, 利咽, 排膿
	防風散					防風40 白芷40		甘菊40	川芎40	茶淸	甘草40
	清神養榮湯			當歸4.8	麥門冬4.8	白芷2.8 羌活2		薄荷2 甘菊2 梔子2 甘草1.6 升麻0.8	川芎4	生薑3片 茶一撮	
	沃雪湯							薄荷葉120 甘草56 荊芥穗48 白鹽48	砂仁4	天花粉10 .8	
	川芎散			甘草炙30	生乾地黃30	羌活20 防風20 藁本20		酒炒黃連40 酒炒片苓40 升麻20 生甘草20 柴胡14	川芎10	茶淸	

4. 頭痛

두통처방을 東醫寶鑑에서 보면 10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세분화해보면, 첫째, 부위에 따른 분류로 正頭痛과 偏頭痛으로 나누고, 두번째는 病因의 특징에 따라 風寒과 濕熱로, 傳變정도에 따라 厥逆두통과 熱厥두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실에 따른 痰厥頭痛과 氣厥頭痛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머지 眞頭痛과 醉後頭痛은 생략하였다.

1) 두통의 부위에 따른 처방

두통은 한의학에서는 發生經絡으로 三陽經에서 발생한다고 하며, 痰, 火, 氣滯가 원인이라고 보았다. 대부분 風痰으로 파악하여 正頭痛에서는 白芷를 多用한다. 그러나 실제로 두통처방 39개(중복포함)중 實證처방 17개, 虛症처방 10개에서 川芎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아 두통의 主效藥으로 한의학에서는 川芎을 꼽을 수 있다. 작용경락(引經)에 따라 太陽두통에는 羌活, 陽明두통에는 白芷, 少陽두통에는 柴胡, 太陰두통에는 蒼朮, 少陰두통에는 細辛, 그리고 厥陰두통에는 吳茱萸를 활용하기도 한다. 동의보감에서는 여성용 두통약을 따로 설정하고 養血祛風湯과 四神散을 두고 있다.

正頭痛과 偏頭痛처방을 살펴보면 사실 차이점을 크게 볼 수가 없는데, 다만 편두통에서는 祛痰劑로서 白僵蠶만 들어간다는 사실과 芎犀元에서 補益劑를 보강한 차이만 보일 뿐이다.

두통의 위치에 따른 차이를 [丹溪心法]에서는 오른쪽 두통이면 痰이나 熱에 속하는데 痰에는 蒼朮과 半夏를 쓰고, 熱에 속하면 酒製片芩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왼쪽두통이면 風이나 血虛에 속하는데 風에 속하면 荊芥와 薄荷를 쓰고, 血虛에 속하면 川芎, 當歸, 白芍藥 그리고 酒黃柏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醫學正傳]에서는 두통이 오른쪽에 있으면 二陳湯에 천궁, 백지, 방풍, 형개, 박하 그리고 승마를 넣어 사용하고, 왼쪽이 아프면 二陳湯과 四物湯을 합하고 방풍, 형개, 박하, 세신, 만형자, 시호 그리고 酒芩을 가미한다고 하였다.

좌우개념에 따른 한의학적 접근법을 통한 치료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두통치료중 패취약을 左右太陽穴에 붙일 경우 진통작용의 좌우이용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해 본다[Table 5].

2) 病因의 특징과 傳變정도에 따른 두통처방

두통은 대부분 火邪에 기인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風寒濕과 風熱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정도의 심함에 따라 厥逆(寒의 극한 상황)이나 熱厥(熱의 극한 상황)로 표현된 처방으로 구분하는데 厥逆의 경우에는 附子, 白附子, 硫黃이 활용되고, 熱厥의 경우는 大黃이 그 표본이 되어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6].

3) 虛實에 따른 두통처방

虛實에 따른 두통처방을 분석해보면 痰厥頭痛과 氣厥頭痛으로 대별되는데 이는 眩暈에서와 같은 양상이다. 眩暈처방과의 차이점은 眩暈처방에서는 解表약물이 어느 정도 포함되었지만 두통처방에서는 解表약물이 적으며, 眩暈처방에서는 祛痰약물이 평이하나 두통처방에서는 祛痰약물이 강하게 활용되고 또한 天麻와 白附子の 쓰임이 두드러져 있다. 특이한 처방으로는 임상에서 多用되는 半夏白朮天麻湯의 경우 脾胃虛弱한 환자의 實證상태에 補中益氣湯을 기저에 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痰暈의 白附子丸과 痰厥頭痛의 上清白附子丸은 동일한 처방으로 볼 수 있다.

虛症에 적용되는 처방을 분석해 보면 虛暈에서와 마찬가지로 氣厥頭痛에서도 補中益氣湯(順氣和中湯, 黃芪益氣湯, 加味調中益氣湯)이나 四物湯(當歸補血湯, 加味四物湯)을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치료개념의 약물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虛暈에서는 解表清熱약물이 없는 반면에 氣厥頭痛에서는 방풍, 세신, 고본, 만형자, 황금, 황백 그리고 시호와 같은 解表약물이 配屬되었고 오히려 祛痰약물인 半夏가 排除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특히 蔓荊子の 경우 外感風熱로 인한 두통이나 肝經風熱로 인한 頭目 이상을 淸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芎烏散은 產後

두통에 行氣작용을 통한 진통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약물의 修治상 특징으로는 대부분 酒炒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데 이는 머리(上向性)방향으로 작용하게 한다는 한의학적 관점이라 판단된다[Table 7].

그리고 두통의 분류상 빠진 眞頭痛의 경우 不治에 속하므로 논의에서 제외하였으며, 또 醉後頭痛은 현실적으로 임상에서 활용가치가 높는데 이는 內傷門에 있으므로 앞으로 飲酒관련 증후부으로 새로운 편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able 5.

*.용량은 모두 g(그램) 혹은 비율로 참작

병명	처방명	虛				實				輔料	분 석
		表		裏		表		裏			
		寒	熱	寒	熱	寒	熱	寒	熱		
正頭痛	川芎茶調散					羌活20 白芷20 防風10 細辛10	薄荷80 荊芥穗40 甘草20	川芎40		茶清	1. 頭風證과 동일처방
	一字輕金散					白芷20 藿香20 荊芥20 防風20 川烏生10 草烏6	石膏20	川芎20 旋覆花20 南星10		茶清	
	如聖餅子					川烏40 甘草40 防風20 細辛20		南星40 乾薑40 川芎40 半夏製20 天麻20		茶清 燗溫酒	風寒邪伏留陽經
	七生丸					川烏生 草烏生 白芷生 細辛1/2 全蝎1/2	石膏	川芎生 南星生 半夏生		菝葜汁 茶清	
	養血祛風湯(婦人)			當歸2	生乾地黃2	防風2 荊芥2 羌活2 細辛2 藜蘆2	石膏2 蔓荊子2	半夏2 旋覆花2		薑三棗二	甘草2(調和) 1. 頭風證과 동일처방
	四神散(婦人)			當歸			甘菊 荊芥穗	旋覆花		葱白 茶末	各等分
偏頭痛	大承氣湯							厚朴	大黃 芒硝 枳實		泄瀉藥을 통한 치료
	川芎茶調散										正頭痛과 동일
	一字輕金散										正頭痛과 동일
	川芎散						甘菊24 石膏24	川芎24 白蠟蠶生24			
	芎犀元			人蔘20 甘草20 阿膠珠16	麥門冬30	細辛20	石膏40 山梔子10	川芎40	赤茯苓20 犀角10 龍腦10 朱砂22	煉蜜 茶清 溫酒	

Table 6.

*용량은 모두 g(그램) 혹은 비율로 참작

병명	처방명	虛				實				輔料	분 석
		表		裏		表		裏			
		寒	熱	寒	熱	寒	熱	寒	熱		
風寒 頭痛	三五 七散			山茱萸60 乾薑炮60 附子炮30		防風80 細辛30			赤茯苓 60	溫酒 혹은 薑三棗二	1. 乾薑 附子 가 表寒을 제 거할 가능성.
	芎辛湯			白朮6 甘草4		細辛6		川芎12		生薑5片 茶芽少許	風寒濕
	芎芷香 蘇散 (傷寒)					香附子8 紫蘇葉8 陳皮4 白芷4		蒼朮6 川芎4		薑三棗二	甘草2 傷寒傷風表證
	如聖 餅子										正頭痛과 동 일
濕厥 頭痛	芎辛湯										風寒頭痛참고
	芎朮除 眩湯			白朮4 附子生4 桂皮2 甘草2				川芎8		薑7片 棗2枚	寒濕
厥逆 頭痛	羌活附 子湯	附子4 黃芪2 甘草炙2	升麻2			麻黃4 防風4 白芷4 羌活2.8		白僵蠶炒4 蒼朮2.8	黃柏 2.8		腦風(大寒邪)
	白附 子散			乾薑10		麻黃不去節20 川烏20		白附子40 南星20 全蝎5개 麝香10	朱砂 10	溫酒	骨髓에 風寒 邪
	玉真丸							石膏煨40	硫黃80 半夏製40	硝石 40	生薑汁
濕熱 頭痛	清空膏			炙甘草60		防風40 羌活40	黃芩半生半酒炒120 柴胡28	川芎20	黃連酒 炒40	茶清	風濕熱
	小清 空膏						片苓酒拌晒乾爲末			茶清 혹은 酒	清空膏와 동 일증상
熱厥 頭痛	清上瀉 火湯			炙甘草2 黃芪2 當歸身1.2 酒紅花0.4	생지황1. 6	羌活3.2 藁本1.6 防風1.4 細辛1.2	柴胡4 酒黃芩2.8 酒知母2.8 升麻1.4 蔓荊子1.2 荊芥穗0.8 生甘草0.8	蒼朮1.2 川芎0.8	酒黃柏2 酒黃連 1.6		
	防風散			當歸4		羌活4 防風4	梔子4 薄荷4 蟬殼2 甘草2	川芎4	大黃4	燈心20莖 苦竹葉10片	積熱上衝. 頭 痛如火

Table 7.

병명	처방명	虛				實				輔料	분 석
		表		裏		表		裏			
		寒	熱	寒	熱	寒	熱	寒	熱		
痰厥頭痛	玉壺丸			白朮20				半夏生40 南星生40 天麻20 雄黃水飛14	白麩120	生薑湯	雄黃: 攻毒燥濕殺蟲, 祛痰截瘧定驚
	半夏白朮天麻湯			白朮4 人蔘2 黃芪2 乾薑1.2			半夏製6 陳皮6 麥芽炒6 神麩炒4 蒼朮2 天麻2	白茯苓2 澤瀉2 黃柏酒洗0.8	生薑5片	風虛	
	上清白朮子丸					甘菊40	白附子炮40 半夏製40 川芎40 南星炮40 白細蠶炒40 陳皮去白40 旋覆花40 天麻40 全蝎炒20		薑湯	風痰	
	定風餅子						烏頭 川芎 南星 半夏 天麻 乾薑 白附子	白茯苓	薑湯	甘草 各等分	
	芎辛導痰湯					細辛4	半夏製8 川芎4 南星炮4 陳皮4	赤茯苓 4枳殼2		甘草2	
	三生丸						半夏 白附子 天南星 各等分				
	二陳湯+					細辛	南星 蒼朮 川芎				
氣厥頭痛	順氣和中湯	升麻1.2 柴胡1.2	黃芪蜜炒6 人蔘4 白朮2 當歸2 陳皮2	白芍藥2	細辛0.8	蔓荊子0.8	川芎0.8				氣虛 1.柴胡 升麻를 補의 개념으로 2.補中益氣湯의 변방
	黃芪益氣湯		黃芪蜜炒4 人蔘2.8 白朮2.8 當歸酒洗2 升麻2		藥本2 細辛2		半夏製2.8 陳皮2.8 川芎2	黃柏酒炒2	薑三棗二	甘草2 氣虛 1.補中益氣湯변방	
	當歸補血湯		當歸8	生乾地黃炒8 白芍藥8	防風2 藥本1.6	片苓酒炒8 柴胡2 蔓荊子2 荊芥1.6	川芎8			血虛	
	加味四物湯		當歸2.8	生乾地黃酒 炒2.8		黃芩酒炒2.8 蔓荊子2.8 梔子炒2.8	川芎2.8	黃柏酒炒2.8 知母酒炒2.8 黃連酒炒2.8		血虛陰火上衝	
	加味調中益氣湯	升麻1.2 柴胡1.2	黃芪蜜炒4 人蔘2.8 甘草2.8 當歸2		細辛1.2	蔓荊子1.2	蒼朮2.8 川芎2 陳皮2 木香1.2			氣血俱虛 1.順氣和中湯과 비슷	
	安神湯		黃芪6 炙甘草0.8	生地黃酒浸2	羌活4 防風1	柴胡酒浸2 升麻酒浸2 知母酒浸2 生甘草0.8 蔓荊子1.2	川芎1.2	黃柏酒浸4		氣血俱虛有火	
	四柱散(大便)		人蔘5 附子5				木香5	白茯苓5	薑三棗二 鹽少 茶一撮	大病後氣虛 元藏虛冷	
	芎烏散						川芎 烏藥 各等分			氣上不下 厥而爲痛 產後頭痛	

4) 두통의 六經으로의 구분
동의보감에서 말한 이러한 분류는 타 질병에서

도 공히 적용되는 의미라 할 수 있다[Table 8].

Table 8.

太陽두통	羌活 獨活 麻黃 川芎
少陽두통	柴胡 黃芩
陽明두통	葛根 升麻 石膏 白芷
太陰두통	蒼朮 半夏 南星
少陰두통	麻黃附子細辛湯(傷寒門):麻黃8 細辛8 附子炮4
厥陰두통	吳茱萸湯(傷寒門):吳茱萸12 人蔘8 生薑4片 大棗2枚
三陽合病두통	三陽湯: 羌活 防風 石膏 白芷 柴胡 川芎 各4g 荊芥 升麻 葛根 白芍藥 細辛 各2g 蔥白3莖

5. 기타 頭部관련 병증

腦風證은 앞서 언급한 病因의 특징과 傳變 정도에 따른 두통처방에서의 厥逆頭痛처방과 같은 맥락이므로 따로 들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藥能의 강도가 약간은 약할 뿐이라고 보인다. 首風證의 처방은 일반적인 두통 적용약물인 천궁,

천마와 백지를 활용한 것으로 목욕후 마실 음료나 크림을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眉稜骨痛은 두통의 한 형태로 인식할 수 있으며, 實證으로 파악되며 痰厥頭痛의 범주에 배속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Table 9].

Table 9.

*용량은 모두 g(그램) 혹은 비율로 참작

病名	처방명	虛				實				輔料	분 석
		表		裏		表		裏			
		寒	熱	寒	熱	寒	熱	寒	熱		
腦風證	神聖散					麻黃 細辛 藿香葉	葛根半 生半炒			荊芥 薄荷酒	各等分
	太陽丹			甘草40		川烏炮40 白芷40	石膏80	川芎40 龍腦8		蔥, 茶煎湯下	
首風證	大川芎丸							川芎160 天麻40		茶清 혹 술	목욕후 바람피임
	白芷丸					白芷 (蘿蔔汁浸)				蜜丸, 茶清 혹 荊芥湯下	
眉稜骨痛	清州白元子 (風門)							半夏280 天南星120 白附子80 川烏20		二陳湯煎水	風痰
	芎辛導痰湯			+白朮				+川烏			痰厥頭痛참조(濕痰)
	選奇湯					羌活8 防風8	酒片苓6	半夏製8		生薑3片	甘草4
	上清散			白芍藥10		荊芥10 薄荷10		川芎10 鬱金10 乳香2 沒藥2 龍腦1	芒硝10		鼻嗜

그리고 [風頭旋]은 머리가 핑도는 현상과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머리가 흔들리는 증상인데 대체로 頭風證가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특별히 동의보감에서는 (防風120g, 瓜蒌根 黃芪蜜炒 羌活 白灼藥 各20g, 犀角屑 甘草 各10g, 蛇蛻炙 赤鉤藤釣子 麻黃 各4g, 棗肉化丸, 薄荷湯下)하는 처방을 기술하고 있다.

[頭生白屑]부분에서 肺가 風熱을 받아서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처방은 頭風證에 언급한 消風散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風頭旋과 頭生白屑은 모두 頭風證에 배속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두부질환에 활용되는 특수치료법

[嗜鼻法]은 두통치료약물을 코로 붙여넣는 방법인데 활용되는 단방약으로는 硝石가루, 華撥가루, 皂莢가루 그리고 생무즙이 두통 및 편두통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처방으로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용량은 모두 g(그램) 혹은 비율로 참작

病名	처방명	虛				實				輔料	분 석
		表		裏		表		裏			
		寒	熱	寒	熱	寒	熱	寒	熱		
嗜鼻 (頭痛)	一粒金					白芷8 藁本8		藜蘆12 川芎8 玄胡索8	青黛8	猪膽汁	
	不臥散 = 青黛散							玄胡索7枚 猪牙白角80	青黛8		
	六聖散					白芷8		乳香8 沒藥8 川芎8 雄黃8	芒硝20		
	上清散				白芍 藥10		荊芥10 薄荷10	川芎10 鬱金10 乳香2 沒藥2 龍腦1	芒硝10		眉稜骨痛에 있음

[吐法]을 활용하는 頭痛은 주로 厥頭痛으로 痰厥하기 때문인데 이때는 瓜蒂散(과체초 적소두 각 등분)을 溫醬水로 복용하여 吐하게 한 후 防風通聖散에 半夏와 南星을 넣은 처방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下法]을 두통에 사용할 경우는 大承氣湯이나 調胃承氣湯을 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III. 結 論

東醫寶鑑의 外形篇중 頭부분을 살펴 본 바 몇 가지 결론을 얻은 바를 보면

1. 병증으로 크게 頭風證, 眩暈, 頭痛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2. 세 病證의 대부분 처방은 實證경향을 나타내었으며, 實證 가운데에도 表경향을 나타내었다.
3. 表證에 해당하지만 風寒證과 風熱證의 구분이 있으나 風熱證경향이 많았다.
4. 祛痰劑의 활용경향이 많고 그 다음으로 治風약물을 활용하였다.
5. 모든 病症에서 虛症경향일 경우 補氣藥物을 보

편적으로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

6. 頭痛처방은 部位, 病因, 虛實에 따라 구분할 수 있었다.
7. 眩暈처방에서는 解表藥의 활용이 많은 반면 頭痛처방에서는 적었다.

앞으로 左右頭痛의 차이에 대한 처방약리가 밝혀지길 기대하고 아울러 嗜鼻法과 같은 치료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5학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기에 이에 감사드립니다.

參考文獻

1. 허준, 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2. 신길구, 신씨본초학(각론), 수문사, 서울, 1982.
3. 顏正華, 中藥學,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91.
4. 황도연, 방약합편, 남산당, 서울, 1977.